

성화 1
(성화의 핵심원리)

에베소서 4 : 21 진리가 예수 안에 있는 것 같이 너희가 과연 그에게서
듣고 또한 그 안에서 가르침을 받았을 진대

에베소서 4 : 22 너희는 유혹의 욕심을 따라 썩어져 가는 구습을 좇는 옛
사람을 벗어 버리고

에베소서 4 : 23 오직 심령으로 새롭게 되어

에베소서 4 : 24 하나님을 따라 의와 진리의 거룩함으로 지으심을 받은
새 사람을 입으라

이 땅위에서의 우리의 신앙 생활에는 두 측면이 있습니다. 믿음과 성화입니다. 믿음은 우리의 일상생활의 여러가지 문제를 하나님을 의지하여 해결함으로 받는 것이요, 성화는 성령의 열매로 인해 예수님의 형상으로 변해 가는 것입니다. 이 둘은 우리 신앙 생활의 패턴이 되는 것이니 우리 해당하는 성경 구절을 찾아 보고 가십시오. 먼저 믿음에 대한 구절은,

고린도후서 1 : 9 우리 마음에 사형 선고를 받은 줄 알았으니 이는
우리로 자기를 의뢰하지 말고 오직 죽은 자를 다시 살리시는 하나님만
의뢰하게 하심이라

다음 성화에 대한 구절은,

고후 7:1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가운데 거룩함을 온전히 이루어 육과 영의
온갖 더러운 것에서 자신을 깨끗히 하자

믿음에 치중하는 설교를 하는 사람은 적극적 사고 방식을 말하고, 성화에 치중하는 설교를 하는 사람은 도덕적 설교로 빠지기가 쉽습니다. 그러나 중요한 것은 그리스도의 십자가입니다.

이 두가지는 하나의 일체를 이루고 있습니다. 믿음의 능력을 원하는 사람은 성화의 삶을 살아야 하고, 성화의 삶을 사는 사람은 성령의 능력이 따라오게 되어 있습니다. 믿음의 능력을 원하는 사람은 성화의 삶을 반드시 살아야 합니다.

오늘부터 저는 성화의 근본 원리를 십자가와 부활과 연관하여 공부하려고 합니다.

오늘은 십자가와 부활이 우리의 성화의 삶과 어떤 관계가 있는지를 말씀드리려 합니다.

I. 신앙 생활에서 성화의 위치

먼저 성화가 무엇입니까?

성화는 성령 충만으로 인해 성령의 열매가 우리의 인격에 맺혀 예수님의 형상을 닮아 하루하루 변화해 가는 것을 의미합니다. 성화는 중생한 성도에게 반드시 있어야 합니다.

야고보서 2 : 14 내 형제들아 만일 사람이 믿음이 있노라 하고 행함이

없으면 “ 무슨 이익이 있으리요 그 믿음이 능히 자기를 구원하겠느냐

야고보서 2 : 17 이와 같이 행함이 없는 믿음은 그 자체가 죽은 것이라

성화가 중생한 성도에게 반드시 있어야 한다고 말하면, 성화의 양으로 구원받는 것이 아니라고 하면서 반대부터 하려고 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이런 사람은 하나는 알고 둘을 모르는 사람입니다. 칼빈은 이런 말을 했습니다. “우리가 구원을 받은 것은 행위로 구원을 받을 것은 아니지만, 행위없는 구원을 받은 것은 아니라” 고 말합니다. 이 말은 전적으로 옳은 말입니다. 성화는 중생한 성도에게 반드시 따라오는 표식입니다. “성화는 중생의 표식” 입니다.

표식이 무엇입니까?

표식은 마치 우리의 이름과 같습니다. 나의 이름이 나라는 존재를 표시해 주듯, 성화는 이 사람이 중생한 사람이라는 표식입니다. 이름없는 사람이 없듯, 성화없는 기독교인은 없습니다.

사람은 이름이 없이도 살 수는 있습니다.. 그러나 어떤 사람이 이름없이 산다면 그 불편함이란 가히 상상하기 어렵습니다.

논리적으로는 성화없어도 구원을 받을 수 있을 것입니다. 그러나 어떤 기독교인이 성화가 없이 산다면 그 불편함이란 가히 상상할 수가 없습니다. 이름없이 사는 것처럼 말입니다.

성화가 표식이라는 말은 마치 이런 것입니다.

믿음으로 구원을 받은 성도가 세상을 살아 가는 표식이 바로 성화입니다.

베드로후서 1 : 4 이로써 그 보배롭고 지극히 큰 약속을 우리에게 주사

이 약속으로 말미암아 너희로 정욕을 인하여 세상에서 썩어질 것을 피하여
신의 성품에 참여하는 자가 되게 하려 하셨으니

이 구절에서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신의 성품에 참여하게 하기 위해 부르셨다고 합니다. 신의 성품에
참여하게 하기 위해 부르셨는데 성화없는 기독교인이 있을 수가 있습니까?

성화의 양으로 구원 받는 것은 아닙니다. 성화의 양으로 구원을 받는다고 하면 이 세상에서 구원을 받을
사람은 하나도 없습니다. 그러나 성화없는 중생인이 있다면, 중생한 사람이 아닙니다. 그런 사람은
이름없이 사는 사람과 같은 사람입니다.

이런 각도에서 볼 때 중생한 사람은 반드시 성화의 삶을 살아야 합니다. 중생인에게 성화의 삶이 반드시
필요하다고 하는것은 이런 각도에서 하는 말입니다.

예수님께서 너희는 세상의 빛이라고 하셨습니다. 또 세상의 소금이라고 하셨습니다.

짠 맛이 없는 소금을 상상 할 수 있습니까?

어두움을 비치지 못하는 빛을 상상 할 수 있습니까?

성화없는 기독교인을 상상할 수가 있습니까?

짠맛이 없는 소금은 소금이 아니고, 비추지 못하는 빛이 빛이 아니듯,
성화없는 기독교인은 중생한 사람이 아닙니다.

누가복음 14 : 34 소금이 좋은 것이나 소금도 만일 그 맛을 잃었으면
무엇으로 짜게 하리요

누가복음 14 : 35 땅에도 거름에도 쓸데 없어 내어버리느니라 들을 귀가
있는 자는 들을지어다 하시니라

여기서 우리는 한가지 질문에 봉착하게 됩니다. 어떻게 성화해 갈 것이냐?

II. 성화의 핵심 원리

성화의 핵심 원리는 육에 속한 옛사람이 죽고, 영에 속한 새사람이 사는 것입니다. 죽는 것이 전부가 아닙니다. 죽고 다시 살아야 합니다.

로마서 6 : 5 만일 우리가 그의 죽으심을 본받아 연합한 자가 되었으면
또한 그의 부활을 본받아 연합한 자가 되리라

그러면 어떻게 육에 속한 옛사람이 죽고, 영에 속한 새사람으로 살 수 있나요?

육에 속한 옛사람은 예수님과 함께 십자가에서 죽었습니다.

영에 속한 새사람은 예수님과 함께 새생명으로 다시 살았습니다.

이것이 바로 성화의 핵심 원리입니다.

여기서 우리는 육과 옛사람의 의미가 무엇인지 아는 것이 필요합니다.

이것을 우리가 오늘 바로 이해하면 앞으로의 영적 생활에 큰 진보가 오게 됩니다.

타락한 아담은 그 후손에게 두 가지 유산을 남겨 주었습니다. 죄책으로서의 사망과 인간 내면의 부패인 오염입니다. 오염으로 인해 인간의 내면은 완전히 타락하여 영적 선은 찾아 볼 수 없게 된 것을 전적 타락이라 하고, 영적 선을 행하는데 완전히 무능해진 것을 전적 무능이라고 합니다.

로마서 7 : 18 내 속 곧 내 육신에 선한 것이 거하지 아니하는 줄을

아노니 원함은 내게 있으나 선을 행하는 것은 없노라

내 속 곧 내 육신에 선한 것이 거하지 아니함 : 전적 타락(Total Depravity)

원함은 내게 있으나 선을 행하는 것은 없노라, 선을 행할 수 없다 : 전적 무능 (Total Inability)

하나님께 대하여 죽어 전적 무능하고 전적 타락한 것이 오염인데, 오염은 무의탁성과 독립성의 두가지 속성이 있습니다. 독립성은 하나님과 종속된 상태를 벗어나 독립된 존재로 살겠다는 것이며 무의탁성은 하나님을 의지하지 않고 자기를 믿고 살겠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타락으로 인해 오염된 인간은 하나님도 빼놓지 않고 하나님과 독립하여 자기를 믿고 의지하고 살아 갑니다. 이 무의탁성과 독립성이 바로 육이며, 죄의 오염입니다.

객관적으로 존재하는 죄가 타락한 인간 안에서 인격화한 죄가 육이기 때문에 아담의 후예가 있는 곳엔 언제나 육이 있습니다. 타락한 아담의 후예는 모두 육입니다. 자연인은 있는 그대로의 상태에서 육입니다. 육은 아담의 후손이 있는 곳에는 언제나 존재합니다. 우리가 살기 위하여는 숨을 쉬지 않고 살 수 없듯,

아담의 후예인 자연인은 육을 벗어나서 살 수가 없습니다. 중생치 못하면 죄와 육으로부터 자유할 수가 없습니다.. 사도 바울은 이것을 육에 있다고 말합니다.

로마서 8 : 8 육신에 있는 자들은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수 없느니라

[8] So then they that are in the flesh cannot please God.

<육의 경향에 대하여>

타락한 아담에게 속한 것은 모두 육입니다. 육신을 얻은 우리의 몸(body)이라고 생각하시겠지만 육신은 우리의 몸(body)을 가르키는 말이 아닙니다. 육신은 flesh 로서 타락한 아담이 후손에게 물려준 죄적 본성을 말합니다. 이 육신의 의미를 모르면 로마서는 이해하지 못합니다.

육은 타락한 아담의 죄적 본성이기 때문에 영이신 하나님을 반대하고, 죄를 더 좋아 하는 경향입니다.

우리 속담에 훔쳐 먹는 떡이 더 맛이 있다고 합니다. 훔쳐 먹는 떡이 더 맛이 있을 수가 있습니까? 이것은 인간은 타락하여 죄적인 쾌락을 더 즐거워 하는 경향이 있다는 말입니다. 또 사촌이 땅을 사면 배가 아프다는 말이 있습니다. 이것이 나쁘다는 것을 알면서도 자기도 모르게 이런 감정이 생깁니다.

이것은 타락한 인간안에 있는 육의 경향을 잘 말해 줍니다.

타락한 인간은 영이 죽어 있기 때문에 온통 육으로 가득차 있다고 하는 것이 성경의 선언입니다.

예수님은 말씀하시길

마태복음 15 : 18 입에서 나오는 것들은 마음에서 나오나니 이것이야말로 사람을 더럽게 하느니라

마태복음 15 : 19 마음에서 나오는 것은 악한 생각과 살인과 간음과 음란과 도적질과 거짓 증거와 훼방이니

마태복음 15 : 20 이런 것들이 사람을 더럽게 하는 것이요 씻지 않은 손으로 먹는 것은 사람을 더럽게 하지 못하느니라

간혹 누가 선한 일을 많이 하였다 할지라도 육이 영이 되는 아닙니다. 그것은 하나님의 기준으로 볼 때는 얼굴이 검은 사람이 밀가루로 화장을 한 것같이 아뉘는 것을 가릴 수 없다고 말합니다. 이것을

예레미야 13 : 23 구스인이 그 피부를, 표범이 그 반점을 변할 수 있느뇨

할수 있을진대 악에 익숙한 너희도 선을 행할 수 있으리라

구스인이 그 피부를, 표범이 그 반점을 변할 수 없는 것과 같다고

하였습니다. 구스인은 아프리카의 에집트 옆에 있는 나라로 그 나라 사람은 얼굴이 검습니다.
여기서 부터 예수님의 자기 부인의 교리가 나옵니다. 바울 사도는 이 자기 부인을 옛사람의 죽음이라는
말로 표현했습니다.

<육과 영의 관계를 생각해 보십시오.>

요한복음 3 : 6 육으로 난 것은 육이요 성령으로 난 것은 영이니

육에서 난 것은 육뿐이며, 육에서 영이 날 수 없습니다. 또 영에서 육이 날 수 없습니다. 육적인 것은 육적인
것일 뿐이지, 육적인 것을 고치고 개량하여도 영적인 것으로 바뀌질 않는다는 뜻입니다. 영적인 것과
육적인 것은 서로 반대로 행하려고 합니다. 바울은 로마서 8:5-8 을 보면,

로마서 8 : 5 육신을 좇는 자는 육신의 일을 영을 좇는 자는 영의 일을
생각하나니

로마서 8 : 6 육신의 생각은 사망이요 영의 생각은 생명과 평안이니라

로마서 8 : 7 육신의 생각은 하나님과 원수가 되나니 이는 하나님의 법에
굴복치 아니할뿐 아니라 할 수도 없음이라

로마서 8 : 8 육신에 있는 자들은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수 없느니라

육신의 생각과 성령의 생각은 원수 관계에 있습니다.

성경에 탐심을 갖지 말라 하여 탐심을 억제하려 하니깐 탐심이 더 왕성해집니다. 반대하려는 욕구가
생깁니다. 하나님의 율법이 탐내지 말라고 했더니 탐심이 없어지는 것이 아니고 탐심이 더 크게 생기더라
말입니다. 하지 말라는 일은 더하고 싶어집니다. 우리 속담에 하던 짓도 멍석 펴놓고 하라고 하면 앓한다는
말이 있습니다. 이것은 신앙 생활에 있어서도 마찬가지입니다. **반대로 행동합니다.**

이것이 육신의 생각은 하나님과 원수가 되나니 이는 하나님의 법에 굴복치 아니할 뿐 아니라 할수도
없음이라 한 말의 뜻입니다.

이것은 예수님 안 믿는 사람들의 이야기인가요?

아닙니다. 믿는 사람인 우리의 이야기입니다. 사도 바울이 로마서 7 장 7-8 절에서 이것을 아주 적나라하게
표현했습니다.

로마서 7 : 7 그런즉 우리가 무슨 말 하리요 율법이 죄냐 그럴 수
없느니라 율법으로 말미암지 않고는 내가 죄를 알지 못하였니 곧 율법이
탐내지 말라 하지 아니하였더라 내가 탐심을 알지 못하였으리라
로마서 7 : 8 그러나 죄가 기회를 타서 계명으로 말미암아 내 속에서
각양 탐심을 이루었나니 이는 법이 없으면 죄가 죽은 것임이니라

인간안에 있는 이런 성향은 타락한 아담의 성품으로 아담에게서 물려 받은 육입니다. . 죄를 버려야 하듯
육도 버려야 합니다. 고쳐쓰려고 해서는 않됩니다.

이 육은 고칠 수가 없습니다. 이미 완전히 썩어, 고쳐서 쓸 수가 없습니다. 지구 상에 있는 모든 종교는
땅에서 왔고, 그래서 육을 고쳐 써보려고 노력합니다. 우리 예수님은 하늘로 부터 하늘에 속한 것을 가지고
오신 분입니다.

고린도전서 15 : 45 기록된바 첫 사람 아담은 산 영이 되었다 함과 같이
마지막 아담은 살려 주는 영이 되었나니
고린도전서 15 : 46 그러나 먼저는 신령한 자가 아니요 육 있는 자요 그
다음에 신령한 자니라
고린도전서 15 : 47 첫 사람은 땅에서 났으니 흙에 속한 자이거니와 둘째
사람은 하늘에서 나셨느니라

땅에 속한 것은 고쳐 쓴 것이 아니고, 버리고, 하늘에 속한 새로운 것으로 덧입는 것이 성화입니다.

여기서 사이드로 빠지는 것 같지만 한 얘기를 하고 가십시오. 동성 연애자들은 자기네들은 하나님으로 부터
그런 성향을 받아 가지고 태어 났기 때문에, 동성을 사랑하는 것이 변화를 받지 않아도, 그대로 하나님을
섬길 수 있다고 주장합니다. 자기들의 동성애가 하나님이 주신 자연이라는 주장입니다. 이것이 옳습니까?
동성애는 전적으로 타락한 아담에게서 나온 육입니다. 이것은 버려야 합니다.

에베소서 4 : 22 너희는 유혹의 욕심을 따라 썩어져 가는 구습을 좇는 옛
사람을 벗어 버리고

에베소서 4 : 23 오직 심령으로 새롭게 되어

에베소서 4 : 24 하나님을 따라 의와 진리의 거룩함으로 지으심을 받은
새 사람을 입으라

육은 다 버려야 합니다. 고쳐 쓰는 것이 아닙니다.

새사람을 입는 것은 성령 충만을 받지 않으면 않습니다. 성령 충만이 아니면 다시 자기 충만으로 돌아 갑니다.

<옛사람에 대하여>

이 육이 각 개인 안에서 개개인의 인격을 구성하고 있습니다. 이것이 옛사람입니다. 개개인의 인격을 구성하는 factor 는 그 사람의 타고난 기질, 교육, 자라난 환경 모든 것이 복합하여 형성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사람마다 독특한 옛사람을 가지고 있고, 옛사람의 인격을 가지고 있습니다. 이 옛사람은 죄에 중독된 인격입니다. 알코올 중독자를 알코올이 지배하 듯 옛사람은 죄에 중독되어 있습니다. 옛사람은 언제나 죄의 지배를 받고 있습니다.

옛사람은 육을 왕으로 섬깁니다. 죄의 지배를 받습니다. 죄는 옛사람을 통하여 각개인을 지배합니다. 이렇게 말하면 옛사람으로 살아 가는 타락한 아담의 후예들도 여러가지 선행을 하는데 그것이 죄를 짓는 것이냐고 물을 사람이 있을 것입니다. 이 질문에 대한 신학적 대답은, 하나님께서는 일반 은혜에 의해, 모든 사람들에게 선을 행할 수 있는 능력을 남겨 주었습니다. 자연인은 이 일반 은혜에 의한 선을 가지고 선행을 하며 인류를 위해 봉사할 수 있습니다. 이것을 시민적 선(Civil Good)이라고 부릅니다. 이것은 영적 선(Spiritual Good)과 다릅니다. 이 시민적 선은 하나님으로 부터 상을 받을 공로(Merit)를 구성하지는 못합니다.

타락한 아담의 후예는 시민적 선은 행하나 영적 선은 행하질 못합니다.

이것이 당연함은 육에 속한 사람이 어떻게 영적 선을 행할수 있겠습니까?

옛사람은 언제나 육에 따라 행동합니다. 영에 따라 행동하질 않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지배를 받아 무슨 일을 하기 싫어합니다. 자기 스스로 모든 일을 하길 원합니다. 하나님과 떨어져 독립하여 무슨 일을 하고자 합니다. 하나님을 의지하여 무슨 일을 하지 않습니다. 자신의 능력을 의지하고 살려고 합니다. 바로 육의 본질인 독립성과 무의탁성을 벗어날 수가 없습니다. 육에 속한 사람의 선행은 모두 자기가 행한 것이 됩니다. 그래서 육의 것으로 하나님께 받아 들여 질 수 없는 것입니다.

사람이 공기를 마시면 살듯, 옛사람은 육을 마시며 삽니다. 여기서 벗어나려해도 벗어날 수가 없습니다.

이것은 중생을 하였다고 하여 곧바로 여기에서 벗어 나는 것은 아닙니다.

여기에서 생기는 절규가 바로 성화를 향한 몸부림입니다.

이 글이나 인터넷 방송을 들으시고, 다른 사람에게도 전해야 겠다고 생각이 드시는 분은 5 분만 시간을 내셔서 저의 twitter 나 café 에나, Blog 에 가셔서 소개의 글을 올려 주십시오. 여러분의 조그마한 노력으로 수많은 사람이 읽고 듣게 됩니다.

- Café 명 : 믿음의 향연

<http://cafe.naver.com/Christiansymposium.cafe> 이나

- Blog 명 : 행복의 샘터

<http://blog.daum.net/shk2812> 이나

- * twitter

1. <http://www.twtkr.com> 으로 가셔서 로그인 하세요.
2. 바울성서 아카데미(spba0708)에 접속하여 Follower 등록을 하세요
(twitter 안에서검색 box 에 spba0708 을 넣으신후 click 하면 접속됨).
3. 내 twitter 의 home 으로 가서 글을 쓰신 후 tweet 하세요.
4. 제가 twitter 에 올린 글(예, example)

성령님이 인격자라는 것은 우리의 인격을 말씀으로 지배한다는 뜻이고, 우리는

말씀에 완전히 순종하는 것입니다. 더 알고 싶으면,
<http://www.stpaulbibleacademy.com/3FCFContents.html>

여섯째주를 공부하시길!